

민며느리와 음유시인

수필가 최규자

결혼하는데 있어서 남자가 여자쪽의 신부에 대한 대상(代償)으로 일정한 금품을 지불하는 형식의 결혼을 일컬어 구대혼(購買婚)이라 한다. 기본 취지로서 여자를 구입(購入)하여 신부를 삼는다는 것이다. 이것은 여자편 친족이 신부를 출산하여 그간의 공과 노력을 들여 기른 여성을 잃는데 대한 남자편의 일종의 보상으로서 이해되며, 지불불능의 남자는 노력봉사로 대체하는 경우도 있었다. 이러한 관행은 일반적으로 부계적(父系的)인 목족민 사이에서 행하여졌다고 한다.

그런가하면 장차 며느리로 살기위하여 어린 소녀를 데려다 길러서 성장하면 아들과 혼인시켜 며느리를 삼는 소위 민며느리 제도도 있었다. 이것은 보통 가계(家計)가 넉넉하지 못한 집에서 행하여졌던 혼인풍습으로 혼인비용을 마련할 수가 없는 사람

들에게 흔히 있었다. 아니면 여러 가지 피치못할 형편으로해서 혼인상대자가 없는 경우에 고아나 어린소녀를 데려다가 수년간 기른다.

이러한 혼인 풍속은 삼국시대(三國時代)의 구대혼인(購買婚姻)과 깊은 관계가 있으며, 동옥저(東沃沮)에서는 데려다가 길렀던 여자가 성인이 되면 친가(親家)로 다시 가서 사위의 대전(代錢)을 책납(責納)하는 풍속이 있었다고 한다. 예전 미개시대에는 여러 민족간에 이러한 풍속이 흔히 있었고, 한국에 있어서도 서북지방에서는 그 유풍(遺風)이 아직도 남아있다고 한다.

민며느리와 반대로 민사위(豫掇)라 하여 딸을 둔 집에서는 어린소년을 데려다 길러 성장하면 사위로 삼는 풍속도 있었는데, 오늘날의 데릴사위와는 다르다. 데릴사위는

처가에서 데리고 있기로 한 사위를 달한다. 고려시대에는 살림이 궁색한 서민(庶民)뿐 아니라 오히려 귀족층에서도 민사 위하는 풍속이 있었다고 전해지고 있다.

민머느리는 간단히 말해서 장차 머느리를 삼으려고 데려다가 기르는 이른바 민머리의 여자아이를 말한다. 민머느리는 순우리말인데, 쪽찌지 않은 머리를 지칭한다. 접두사 <민->은 이때에는 <꾸밈새나 덧붙여 딸린 것이 없음>의 뜻을 나타내는 말이다. 또한 <닿아서 모지라질>, <우물두물하던 것이 평평하게 됨>의 뜻을 나타내는 말이기도 하다. 이를테면, 아무 꾸밈새가 없는 물건을 민패 또는 민짜라고 하고, 칼집속에 들어있지 않고 밖으로 날카롭게 드러나 있는 칼이나 창 따위의 날을 가리켜 민날이라고 부르는 것이다.

흔히 우리는 나무가 없어 민둥민둥한 산(山)을 가리켜 민둥산이라고 하는데, 독산(秃山) 혹은 벌거숭이산이라고도 부른다. 러시아의 작곡가 무소르그스키의 환상적인 가곡으로 널리 알려진 《민둥산의 하룻밤》이 있다. 농민적이고 또한 민중적인 것에 무한한 애착을 가지는 무소르그스키의 리듬의 극심한 변화와 선

명한 회화적 색채로 엮어지는 발군의 가곡이다. 악다가 해피망측한 술파티를 열고 떠르썩하게 놀다가 아침의 새벽종소리를 듣고 모두 뿔뿔이 사라져버린다는 이야기로 이어지는 환상의 세계를 이미 지화(化)해주는 격조있는 작품으로 지금도 높이 평가받고 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음유시인(吟遊詩人)의 하나로 민스트럴(minstrel)이라는 것이 있다. 지금도 유럽에는 흔히는 아니지만 존재한다고 한다. 영어로는 글리먼(gleeman)이라는 단어도 예전에는 쓰인 것 같다. 여자음유 시인은 글리메이든(gleemaiden)으로 쓰인다. 중세의 유럽에서는 여러 곳을 두루 돌아다니며 악기의 반주로서 시가를 노래하며 회사(喜捨)를 구하였다. 지금도 이와 비슷한 풍경이 유럽에는 남아 있다. 대개가 서민계급의 출신으로 종종 가곡을 자작(自作)하여 중세 속악의 선수가 되기도 하였다. 19세기에 미국에서 흑인으로 분장한 백인의 음악쇼(show)도 이의 아류의 일종이라고 할 수 있겠다.

이와 관련하여 문득 생각나는 것은 훨씬 이전에 즉 12~13세기에 걸쳐 독일에

서 일어났던 시의 일종이 미네장(Minnesang)이다. 보통 미네장을 중세 독일의 연가(戀歌)라고 하는 것은, 미네(Minne)가 중세기사의 사랑이나 봉건적 연애 혹은 구애(求愛)를 뜻하기 때문일 것이다. 그래서 미네싱거(Minnesinger)라면 중세독일의 연애가인(歌人)이나 궁정가인을 의미한다.

주로 귀족이나 기사들이 스스로 작시하고 작사하여 부른 연애시라는 의미에서 미네장이라는 이름이 붙었다고 한다. 이러한 시를 짓고 읊는 사람을 미네쟁거(Minnesanger)라 부른다는 것은 이미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다. 그리고 그들은 각 제후의 궁정을 방문하여 스스로 이러한 시를 읊는 음유(吟遊)시인들이었다. 바그너(R. Wagner)의 《탄호이저(Tannhaeuser)》를 단들게한 포겔바이더(W. von Vogelweide), 역사적으로도 유명한 《파르치팔(Parzival)

》이라는 미네장을 쓴 에셴바흐(W. von Eschenbach) 등은 당시에 널리 알려진 미네쟁거였다. 그러나 14세기에 들어와서는 이러한 시(詩)는 서서히 쇠퇴하기 시작하였다.

데릴사위는 딸만 있고 아들이 없는 집안에서 딸을 시집보내지 않고 같이 데리고 살기로하고 삼는 사위를 말한다. 예로부터 우리나라에서는 남자가 처가에서 살게되는 유형은 솔서(率婿)· 예서(豫婿)· 서양자(婿養子)· 서류부가(婿留婦家)· 초서(招婿)· 첩서(贅婿) 등 여러 가지가 있었다. 그러나 오늘날에 우리가 말하는 데릴사위 제도는 대체로, 딸만 있는 집안이 동족(同族)에서 양자를 입적시키고, 사위는 별도로 맞이하여 그의 노동력으로 가사를 돌보게 하는 이른바 솔서 혼인으로 정의되고 있다. 